

KIA 떠오르는 셋별 박찬호



“이름값 하겠습니다”

“내년 시즌 각오요? 야구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 KIA 신인 내야수 박찬호(19)의 독특한 고도 당찬 각오다.

이제 겨우 프로의 세계를 엿본 신인의 입에서 은퇴라는 얘기가 나왔다. 야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박찬호의 이야기의 전체 조건은 ‘기회를 놓치면’이다.

톡톡 튀는 루키의 과감한 각오. KIA에 젊은 선수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

내년 시즌 KIA의 내야는 기회의 땅이자 치열한 전쟁터다. 불박이 ‘키스톤 콤비’ 김선빈-안치홍이 동반입대를 하면서 공백이 발생했다.

올 시즌 김선빈이 허벅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는 베테랑 김민우가 중용됐고 강한울·박찬호 등 신인 선수에게도 기회가 돌아갔다.

안치홍이 버티던 2루 자리까지 나오면서 내야에 경쟁의 불이 붙었다.

박찬호는 “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를 못 잡으면 내 실력이나 노력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잘 해서 이겨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프로 세계가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감’ 가득했던 박찬호는 올 시즌 냉정하게 야구 선수 박찬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박찬호는 “항상 자신감만 있었는데 잠깐이지만 1군에서도 기회를 얻으면서 알게 됐다. 투수들이 생각처럼 승부를 하지 않고, 생각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다. 많은 공부를 했다”고 언급했다.

타격은 박찬호가 가장 프로 무대를 실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박찬호는 “수비는 그래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

김선빈·안치홍 입대로 내야는 ‘기회의 땅’

올 시즌 첫 선발출전하며 좌측우들 신고식

“수비는 자신...타격 힘 키워 100점 선수 될 것”

다. 내가 서두르는 것만 빼고 안정감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수비로는 절대 뒤지지 않을 자신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타격이 되지 않으면 반쪽 자리 선수밖에 안 되는 것이다. 팀 주전이 되려면 반쪽 가지고 안 된다. 수비는 너무 잘하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 기본적인 것에 신경쓰려고 한다. 타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

다. 스윙을 세게만 돌리려고 했는데 짧게 기술적으로 치는 걸 알아야 한다. 남들처럼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걸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같다. 무조건 자신감으로 나만 믿고 했다. 나한테 맞는 스윙으로 간결하게 타격을 준비할 생각이 다. 또 힘을 키우기 위해 겨울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청용·김보경 QPR 가나

구단주 “다음달 한국선수 2명 영입 계획”...겨울 이적시장 앞두고 시선집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의 구단주인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그룹 회장이 내년 1월 한국인 선수 2명을 영입하겠다고 밝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10일 서울 웨스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QPR이 한국인 선수 2명을 영입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미 QPR에는 축구 대표팀의 왼쪽 풀백으로 활약하는 윤석영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2명의 한국인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페르난데스 회장의 발언은 말 그대로 ‘깜짝 발표’였다.

특히 유럽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구단주가 직접 선수 영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 이미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그렇다면 페르난데스 QPR 구단주가 언급한 한국인 선수 2명은 과연 누구일까.

이에 대해 국내 에이전트들은 “금지초문”이라며 “내년 1월 영입할 정도면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들 어보지 못했다”고 고개를 가웃했다.

하지만 대부분 에이전트는 “현재 상황을 따져보면 영국에서 뛰는 선수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뛰는 이청용(볼턴)과 김보경(카디프시티)이 유력한 대상자”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에이전트는 “이청용이 볼턴과 결별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며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오피가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등 볼턴에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내년 여름 볼턴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이청용 역시 지난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겨울 이적시장에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량을 보이다 보면 좋은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적에 대한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카디프시티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김보경도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김보경은 올해 브라질 월드컵에도 출전했지만 소속팀에서는 감독 교체와 컨디션 난조 등이 겹치면서 출전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현지 언론에서도 김보경이 내년 1월 유럽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면 카디프시티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한 팀에 한국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한다는 페르난데스 구단주의 발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에이전트는 “페르난데스 구단주가 한국에 오면서 이 벤트성으로 한국 선수 영입을 발표한 것 같다”며 “실제로 한국 선수 2명을 모두 뽑을지는 미지수”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연합뉴스



페르난데스 QPR 구단주

슈틸리케 “내년 아시안컵 ‘새 얼굴’ 될 수 있어”

“제주전훈서 ‘배고픈’ 선수 찾을 것...베테랑과 신에 조화 바람직”

율리 슈틸리케(독일)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참신한 선수가 다음 달 아시안컵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전지훈련을 마지막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선수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깜짝 발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아시안컵을 대비한 훈련에 들어간다. 이 훈련에는 한국, 중국, 일본 리그에서 뛰는 선수 28명이 소집됐고 그 가운데 13명은 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된 신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해외파는 한 명도 차출되지 않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처음으로 발탁된 선수들에

대해 “한 두 번 보고 부른 게 아니다”며 “코치들과 함께 여러 번 확인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격수 이정협(상주 상무)의 경우 소속 팀에서 짧은 시간을 소화하는 조커이지만 다섯 차례에 걸쳐 실전 플레이를 관찰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국(전북 현대), 김신욱(울산 현대) 등 부상 때문에 재할하는 스트라이커들은 여전히 아시안컵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들의 발탁 가능성을 묻자 “컨디션이 정상이고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에게는 언제라도 대표팀의 문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시안컵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는 질문에 “최근 이란과의 평가전까지 상황을 보면 10점 만점에 7점이나 7.5점 정도까지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선수들의 컨디션 변화를 포함한 돌발 악재가 있을 수 있어 현재 준비 상황에 지나친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슈틸리케 감독은 ‘돌발 악재’를 통제하기 위해 베테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예와 조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신예가 뜻밖에 발탁될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단 구성에서 공격적인 선수, 수비적인 선수가 잘 어우러져야 하듯이 경험이 있는 선수와 어린 선수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배가 고프는 선수가 필요하다”며 “열정과 의욕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 경험 나이와 관계없이 발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감독